

12

---

# 변화의 첫걸음, 개척의 첫걸음 대구·경북의 발자취



## 【12장을 열며】

대구에는 다른 도시보다 앞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 여럿 있다. 대구·경북의 예술가 중에는 역사에 남을 첫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 있다. 또 대구의 많은 기업이 진취적인 정신과 태도로 미래를 개척하여 괄목할 성취를 이루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변화와 개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대구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화
2. 선구자의 길을 걸었던 대구·경북 예술가
3. 대구 경제사 속 개척의 발자취

# 1

## 대구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화

###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대구시에서 처음 시작된 새로운 변화의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목적과 과정을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가 우리들의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보자.



자연생태 우수 복원 사례로 손꼽히는 대구수목원

### 생태 복원을 통해 조성한 대구수목원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 좋은 변화 중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여럿 있다. 1996년 대구시 서구청에서는 전국 최초의 '공공건물 담장 허물기'(단원3 참고)가 시작되었다. 2015년에 대구에선 전국 최초로 모노레일 도시철도인 제3호선 운행이 시작되었다.(단원2 참고) 이 외에도 대구 역사에는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사례가 여럿 있다.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구수목원 자리는 원래 1990년까지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던 곳이었다. 대구시는 이곳을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으로 복원하여 수목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당시까지 다른 도시에서 시도하지 않은 일이었다.

1997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6~7m 높이로 덮은 후 수목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수목원을 만든다는 소식에 대구 시민들도 자신이 아끼던 분재, 수석 등을 기증하였다. 이런 노력 끝에 2002년 대구수목원이 문을 열었다.

이렇게 탄생한 대구수목원은 그 후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 복원 사례로 지정되었으며, 산림청 인증 공립수목원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2006년 대구수목원에서는 1996년부터 대구시가 추진한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을 통해서 대구 지역에 천만 그루 나무 심기라는 성과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편안한 휴식 공간인 대구수목원은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와 나무와 꽃을 구경하는 대구의 명소가 되었다.



### 전국 최초로 도심에 생긴 대중교통전용지구

대구 중앙로는 대구역~반월당 사이를 잇는 도로 이름이다. 1917년 개설된 이 도로는 대구 도심의 중심 도로인 탓에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였다.

2009년 대구시는 중앙로 약 1km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정하고 일반 승용·승합차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내버스와 이륜자동차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중앙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바꾸어 왕복 4차로였던 도로를 2차로로 축소하고, 폭 3m 정도였던 도로 양쪽 인도의 폭을 최대 12m까지 넓혔다. 횡단보도를 더 만들어 보행자들이 더 편하게 통행하도록 했다.

이런 새로운 변화 후 중앙로는 출퇴근 시간에도 교통 정체가 없는 도로가 되었다. 대기오염이 완화되었고, 차량 소음이 줄어들었다. 시민들은 더 편하게 도로 옆 넓은 인도를 오갈 수 있게 되었으며, 벤치가 놓이고 실개천이 흐르는 중앙로의 인도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다. 이전과 사뭇 다른 대구 중앙로의 풍경은 대구 도심의 분위기를 산뜻하게 해주었다.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이 조치는 국내에서 도심 간선도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든 최초의 사례였고, 이후 다른 도시에도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가 생겼다.



### 20세기 대구의 발전이 시작된 곳 대구역

20세기 대구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철도 개통이었다. 경부선은 대구역에 정차했다. 대구역은 경부선이 개통한 1905년 문을 열었다. 대구역을 통해 많은 사람과 물자가 대구에 몰려들었고, 이것이 대구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 1969년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동대구역이 생기기 전까지 대구역은 대구의 가장 큰 관문이었다. 대구역에서 가까운 북성로, 향촌동 지역은 대구 상공업과 문화의 중심 지역이 되었다. 또 대구역에서 시작되는 중앙로와 동성로는 대구의 중심 도로가 되었다.



대구FC 창단 기념

프로축구 첫 시민구단으로  
탄생한 대구FC



### 최초의 축구전용구장이 생긴 곳은?

축구전용구장이란 축구 경기와 관람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건설한 경기장을 말한다. 육상 트랙 같은 다른 경기시설이 없는 탓에 관람석과 경기장의 거리가 가까워, 관중들은 더 생동감 있게 경기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축구전용구장은 1990년 경북 포항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팀인 '포항 스틸러스'의 홈 경기장이었다. 이 경기장의 이름은 '포항 스틸아트'다. 포항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는 우리나라 프로축구 팀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 된 팀이다.

“대구에도 프로축구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구시와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1년부터 대구에선 프로축구팀 창단이 추진되었다. 대기업이 프로축구팀을 운영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팀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듬해인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 대회 때 대구에서도 몇 개의 시합이 열렸다.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4강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월드컵 이후 대구 연고 프로축구단의 창단 사업은 더욱 힘력을 받았고, 2002년 시민 주 공모를 통해 창단을 본격화하여 2002년 12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의해 창단이 승인되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프로축구 역사상 최초로 시민구단 프로축구팀인 대구 FC가 탄생하였다. 대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시민축구단 모델은 다른 도시로 전파되어 인천, 경남에서도 시민 프로축구단이 탄생했다.

창단 이후 대구FC는 팬들의 사랑과 패기 넘치는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한국 프로축구 리그인 K리그의 인기 구단으로 성장하였다.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FA컵에서 우승을, 2021년에는 대구FC U18팀(현풍고)이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2018년까지 대구FC의 홈 경기장은 수성구에 있는 대구스타디움이었는데 2019년 북구 고성동 축구전용구장 DGB대구은행파크가 생기면서 그곳을 홈 경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영식 목사



대구맹아학교 창립 기념

1946년 대구의 한 교회 건물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인 대구맹아학교가 문을 열었다. 맹아는 당시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리키던 표현인데,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대구맹아학교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세워진 사립학교였다.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은 이영식 목사였다. 1894년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난 이영식은 대구에서 공부하던 청년 시절에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그 후 신학을 전공하여 목사가 된 후에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였는데, 한센병 환자 수용시설인 대구 애락원에서 약 7년간 환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였다.

장애인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장애인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대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직접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세웠는데, 이것 이 바로 대구맹아학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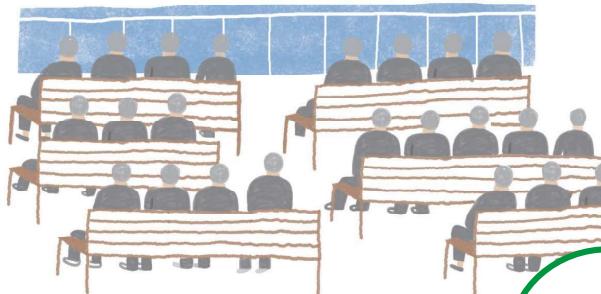
대구맹아학교는 초창기에 학교 재정이 어려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학교를 유지해 나가야 했다. 그러나 이영식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1956년에 장애인 복지와 특수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한국사회사업대학(현재 대구대학교 전신)을 설립했는데, 이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일이었다. 장애인 교육의 선구자였던 그는 1981년 괌에서 무명 동포 위령사업을 추진하던 중 별세하였다.

# 2

## 선구자의 길을 걸었던 대구·경북 예술가

###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대구와 경북의 예술가 중에는 한국 역사에 최초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있다. 각 분야에서 그들이 이뤄낸 선구적 성취는 대구·경북 역사에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다. 음악, 연극, 문학, 영화 분야에서 시대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예술인들을 만나 보자.



지역에서 근대 성악 분야를  
개척한 권태호

### 우리 고장 지식 플러스

#### 동요 <봄나들이> & <어린 음악대> 이야기

권태호는 동요도 작곡했는데 그중 유명한 작품이 <봄나들이>다.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떼 쫑쫑 쫑 봄나들이 갑니다’라는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다.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은 아동문학가 윤석중이다. <어린 음악대>는 ‘따따따 따따따 주먹손으로 따따따 따따따 나팔 불니다’로 시작하는 유명 동요다.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은 경상북도 경산시 출신의 아동문학가이자 음악가인 김성도(1914~1986년)이다. 그는 소년 시절 계성학교(현 대구 계성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문학과 음악 실력을 키웠다.

대구는 서양음악의 유입, 보급, 교육에 있어서 선구적인 도시였다. 근대에 선교를 위해 대구에 온 천주교 사제와 기독교 선교사가 서양음악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세기 초 종교 시설 또는 학교에서 서양음악을 처음 접한 학생 중에는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 결과 대구와 경북에서는 음악 발전을 이끈 여러 예술가가 나왔다. 작곡 분야의 경우 가곡 <동무생각>을 작곡한 박태준이 대표적이다.(단원7 참고) 성악 분야에는 권태호가 있다.

1903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권태호는 어릴 때 교회에서 처음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에 눈떴다. 성악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는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팔이 등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음악을 공부했다.

실력을 갈고닦은 그는 조국으로 돌아와 1928년 대구제일심상소학교(오늘날 2·28기념 중앙공원) 대강당에서 서양음악 독창회를 하였다. 김문보에 이은 대구에서 두 번째의 성악 독창회였다.

광복 후 권태호는 대구에 정착하였고 1946년 대구음악학원을 세워 음악 보급에 앞장섰다. 그는 훌륭한 성악가이자 작곡가로서 <대구 능금 노래>, <농부의 노래> 등의 노래 외에도 대구고, 경명여고, 안동중 등 여러 학교의 교가를 작곡했다. 20세기 한국 성악 음악 개척과 보급에 큰 발자취를 남긴 권태호는 1970년 고향인 안동으로 이주하였고, 1972년 별세하였다.



소설가 백신애와 영천 시립도서관 앞의 백신애문학비

신춘문예 당선  
첫 여성 소설가 백신애

신춘문예란 신문사에서 해마다 1회 실시하는 문학작품 공모전을 말한다.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첫 여성 당선작가가 탄생했다. <나의 어머니>라는 작품으로 응모한 백신애였다.

1908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난 백신애는 서양에서 들어온 신학문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컸다. 그는 자신의 꿈을 좇아 대구로 와서 대구사범학교 강습과 과정을 마쳐 교사 자격을 얻었고, 졸업 후 고향에서 교사로 일하던 중 항일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백신애는 1930년대에 많은 소설을 발표했는데 대표작은 일제강점기에 시베리아를 넘나드는 조선인의 역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꺼래이>이다. ‘꺼래이’는 러시아에서 조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백신애는 1939년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문학 재능을 오래 꽂피우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들의 예술 참여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던 1930년대에 그녀가 문학 분야에서 남긴 성취는 선구적인 것이었다.

오늘날 백신애의 고향인 경북 영천시에서는 해마다 그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행사인 ‘백신애문학제’가 열린다.



시인 이윤수와 『죽순』 창간호



광복 후 최초의 시 동인지  
『죽순』을 발행한 이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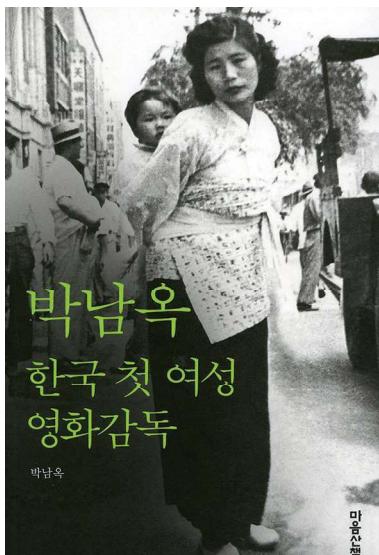
‘오! 조선이 독립하였다. 이제 우리 글로 맘껏 책을 펴낼 수 있게 되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 대구의 시인 이윤수는 이런 기쁨을 느꼈다. 1914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1945년 10월 여러 시인과 뜻을 모아 ‘죽순시인구락부’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죽순은 대나무의 땅속줄기에서 돋아나는 쪽을 말하는데, 시인들의 모임 이름에 죽순을 붙인 것은 광복 후 맞은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은 것으로 추측된다.

문학 모임에 참여한 문학가의 작품을 모은 책을 동인지라고 하는데, 1946년 이윤수는 ‘죽순시인구락부’ 동인지 발간 작업을 시작했다. 『죽순』이라는 제호의 동지를 만들며 이윤수는 원고 청탁, 편집, 교열, 인쇄, 발송 등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당시엔 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종이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이윤수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잡지 제작 과정의 모든 일을 해냈다.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46년 마침내 『죽순』 창간호가 세상에 나왔다. 이 책은 광복 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시 동인지였다. 이윤수는 1949년까지 총 12호의 『죽순』을 발간하였다.

이윤수는 1997년 별세했지만 그의 이름과 그가 이룬 업적은 지금도 대구의 문학사와 함께 하고 있다. 죽순문학회에서는 이윤수의 업적을 기념하는 ‘이윤수문학상’을 만들어 해마다 우수한 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박남옥 감독 평전 표지(왼쪽)와 영화 <미망인> 포스터

###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

1954년 서울에서 <미망인>이라는 영화가 제작되고 있었다. 당시 감독 박남옥은 어린 딸을 업고 제작 현장에 나와서 큐 사인을 외치며 그의 첫 영화를 만들었다.

박남옥은 1923년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나 8세 때부터 대구에서 성장하였다. 경북 여고 재학 때부터 그는 연극, 영화에 관심이 많았다. 또 육상 투포환 선수로 전국체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땄을 만큼 다재다능했다.

그가 영화에 입문한 것은 1946년 서울의 조선영화사 촬영소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였다. 현장에서 영화 제작 노하우를 익힌 그는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

<미망인>을 만들려고 할 때 젊은 여성감독에게 제작비를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박남옥은 포기하지 않았다. 친언니에게서 제작비 도움을 받아 끝내 영화를 완성했다.

<미망인>은 한국전쟁 후 남편 잃은 여성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영화였다. 1955년 봄 서울과 대구에서 영화가 개봉되었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결국 이 작품은 박남옥의 데뷔작이자 마지막 영화가 되고 말았다. 이후 박남옥은 출판사에서 20여 년 일하다가 이민을 떠났고, 2017년 미국에서 별세했다.

박남옥은 한국 영화사에 여성감독 시대를 연 이름으로 영원히 새겨졌고, 2008년부터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그녀의 이름을 딴 ‘박남옥상’이 여성영화인에게 수여되고 있다.

# 3

## 대구 경제사 속 개척의 발자취

###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변화와 개척정신은 기업 경영에서도 중요하다. 대구에서도 많은 기업이 설립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변화와 개척을 통해 성장하였다. 이를 중 오랜 역사를 가진 세 기업의 창업과 성장 역사를 살펴보자.



대구시 인교동 삼성상회 옛터를 알려주는 조형물

### 삼성상회에서 시작된 삼성그룹의 역사

1938년 대구시 중구 인교동에는 삼성상회라는 가게가 있었다. 삼성상회의 주인은 1910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출생한 이병철이라는 젊은 기업인이었다.

삼성상회는 처음에 국수 등의 식료품을 만들어 팔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최초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무역업에 진출하여 해외 시장까지 개척했다.

대구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삼성상회는 이후 서울로 진출하였다. 그후 삼성은 섬유, 유통 등의 여러 산업 분야로 진출하면서 삼성그룹으로 발전했다.

삼성그룹 산하 기업 중엔 1954년 설립한 제일모직이 있다. 제일모직 공장은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세워졌다. 제일모직은 대구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제일모직 공장은 1968년엔 경북 경산시, 1978년엔 경북 구미시에도 세워졌다.

1969년 삼성그룹 산하에 또 하나의 기업이 설립되었다.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삼성그룹은 1987년 설립자 이병철 회장이 별세한 후에도 성장을 계속하여 오늘날 한국 최대 기업이 되었다.

1938년 삼성그룹의 역사가 시작된 삼성상회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어서 1997년에 철거되었다. 현재 그 자리엔 삼성상회의 역사를 알려주는 조형물이 있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었던 제일모직 공장도 이전하여 지금은 없지만, 그 자리엔 삼성상회의 옛 모습을 재현한 건물이 있다.



1967년 10월 창립 당시 대구은행

###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 DGB대구은행

1967년 이전까지 대구에서는 서울에 본사를 둔 은행의 지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른 지방도시도 마찬가지였다.

“대구에 본점이 있는 은행이 필요해.”

그 무렵 대구에선 이런 여론이 조성되었다. 때마침 정부에선 각 도에 1개씩 지방은행을 세운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대구와 경상북도 상공인들은 그 어느 도시보다 빨리 대구에 본점이 있는 은행을 세우자고 뜻을 모았고 신속하게 설립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다른 도시에 앞서 대구에 본점이 있는 지방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지금 이름은 DGB대구은행)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신생 은행인 대구은행은 이후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섰다. 은행 설립 2년차인 1968년에 서문시장 입구에 제1호 지점인 서지점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대구 곳곳에 지점을 연 이어 열었다. 성장 가도를 달린 대구은행은 1972년에는 대구지역 기업 중 최초로 증권 시장에 상장한 데 이어 서울지점을 열었다. 1983년에 온라인망을 전 점포로 확대하는 등 성장을 위한 변화를 멈추지 않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대구은행은 1997년 한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 때 다른 지역의 몇몇 지방은행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1967년부터 시작된 역사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다. DGB대구은행은 오늘날에도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 100년이 넘는 역사, 대구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는 오늘날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 지역별로 있는 경제 단체다. 상공회의소는 회원으로 가입한 상공업체의 권익을 대변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대구상공회의소의 역사는 1906년에 생긴 대구민의 소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단체 이름은 대구상무소, 대구상업회의소, 경북상공회의소 등으로 바뀌었고 1953년 대구상공회의소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대구 외에 경상북도 주요 도시에도 상공회의소가 있다.



삼익THK 전경

성장을 위한 새로운 변화,  
삼익THK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을 장수기업이라고 부른다. 요즘처럼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설립 50년을 넘긴 기업이라면 장수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에 본사를 둔 기업 중에도 50년 역사를 넘어선 장수기업들이 많다. 그중엔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으로 오늘에 이른 산업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삼익THK가 있다.

삼익THK의 시작은 1960년 설립된 삼익공업사인데, 회사 설립 당시 삼익공업사의 주력 생산품은 줄(쇠붙이를 쓸거나 날을 세울 때 쓰는 연장)이었다. 회사는 줄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선두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익은 이런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했다. 쌀을 보관하는 용기인 쌀통 사업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우수한 편리성과 디자인을 갖춘 삼익쌀통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삼익은 연이은 성공에 머물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 기존의 노동집약적 사업에서 벗어나 기술집약적 사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었다. 삼익이 새롭게 도전한 분야는 산업설비 자동화에서 중요한 부품인 LM가이드 생산이었다. 삼익공업사에서 시작된 회사 이름도 기업성장에 발맞춰 삼익THK로 바뀌었다. 오늘날 삼익THK는 반도체, LCD, 로봇, 의료기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자동화 설비를 생산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대구가 방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대구는 신천지 사태로 불리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중심지였지만, 지역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 없이도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 진화하는 데 성공했다. 대구는 이 과정에서 창의적 현장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방역 정책 모델이 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대규모 선제 검사,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도입 등을 탄생시켰다.

대구시 북구에 있는 칠곡경북대병원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코로나 진단 검사의 획기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구도 감염이 우려되던 시기에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대구도 검사도 가능해져 잠복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 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경증 환자들의 격리와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여 중증 환자들이 제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한때 1,000명을 넘었던 확진자가 40여 일의 짧은 기간에 0명이 됨으로써 미국 ABC, 영국 BBC, 일본 닛케이 신문 등 전 세계 언론에 소개되어 큰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 대구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된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하며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 봉쇄 이야기가 나올 때도 시민들은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와 같은 자세는 코로나 극복의 전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의료진들의 헌신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같은 아이디어도 의료진의 헌신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대구가 세계적인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들어보고 그 근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대구도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짧은 시간에 코로나 확산을 극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산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고, 대구은행이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것과 같은 민·관 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가용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가 세계적인 방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더 단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대구의 DNA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실 밖 대구 역사체험

### 변화와 개척의 역사를 담고 있는 4곳

대구에는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공간이 많이 있다.  
또 좋은 변화를 이끈 사람을 기념하는 건축물도 있다. 그중 4곳을 구경해 보자.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전에 삼성그룹 산하 기업인 제일모직이 있었던 자리에 2014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이 센터는 대구시, 삼성전자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신생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한편에는 1938년 대구 시 중구 인교동에 들어선 삼성상회의 옛 모습을 복원한 건물과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의 동상이 있다. 그리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근처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전용 공연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있다.

#### DGB대구은행 금융박물관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DGB대구은행 본사 지하에 있는 박물관이다. 약 170평 규모의 박물관으로 ‘쉽게 보는 화폐금융 경제’, ‘지역과 금융’을 주제로 한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DGB대구은행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실도 있는데, 월요일~금요일 10시에 문을 열고 17시 30분에 문을 닫는다.(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관) 10인 미만 자유 관람은 예약 없이 가능하다.



### 대구대 특수교육역사관

한국 특수교육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한국 특수교육의 선구자인 이영식 목사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다. 경산시에 있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기념관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1881년 조선의 신사유람단이 일본에서 맹아원 교육을 접했을 때부터 1913년 제생원에 맹아부 설치, 1946년 대구맹아학교 설립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의 역사와 한국 특수교육을 이끈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 앞산 큰골 이윤수 기념비

대구시 남구의 앞산에는 여러 골짜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큰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큰골'이다. 큰골 산책로 결에는 『죽순』을 창간한 이윤수의 업적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 비석엔 이윤수의 시 '파도'가 새겨져 있다. 또 큰골에는 한국 전쟁 때 큰 전투였던 낙동강 전투의 승전기념관, 일제강점기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였던 이시영의 순국을 기리는 탑이 있다.